





# 어떤 AI도 목회만큼은 “대체 불능”

옥스퍼드 신학대 마틴 퍼시 교수,  
‘AI시대와 복음’ 주제 IWMC 강연



행사가 열리고 있는 광림교회 내부. © 노형구 기자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요즘 인공지능이 화두다. 특히 작년 알파고와 바둑 기사 이세돌을 상대로 5전 4승 1패로 승리한 일은 연일 화제 거리였다. 알파고의 승리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 순전한 ‘지능’의 승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알파고의 1패속에는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 이세돌의 ‘신의 한수’가 숨겨져 있었다. 바로 순전히 ‘감정, 직관’이라는 인간 성만이 오롯이 드러났기에 빛나는 승리였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AI는 과연 목회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대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2018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가 20일 광림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확장인 마틴 퍼시 박사가 강연을 전하며 이 문제를 논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은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어떤 AI도 목회만큼은 대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교회는 하나님과 교감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순전한 사람의 손길이 담긴 곳”이라며 “AI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뿐이지, ‘감정과 교감’은 AI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삶이 수치로 다 계산되어 질 수 없으며, 감정과 손길 그리고 이해의 요소가 삶에서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교육 현장에서 예비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은 졸업 후 직업이 아닌,

‘Occupation’ 즉 하나님과 사람에 전념하는 일, 곧 감성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일을 하게 됨”을 늘 당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을 향해 항상 전념하셨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 곤란, 상처, 아픔 그리고 기쁨, 행복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며 “우리 목회자도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전념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세상에 화해를 요청했듯이, 우리 목회 사역은 바로 사람들을 향해 웃어주고, 따뜻한 얼굴로 환대하며, 말을 건네는 것”으로 “교회는 진실, 겸손,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럴 때 그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며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다”고 했다.

마틴 퍼시 박사는 목회를 자녀양육에 비견했다. 그는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 인간성, 특히 무조건적 사랑을 원한다”며 “목회가 일이 아닌 유일한 이유는 바로



2018 웨슬리 목회 컨퍼런스 마틴 퍼시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확장

수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예수는 절망 밖에 없는 소외된 이들을 향해 끝까지 전념하셨고, 배랑 끝에 몰려도 이들을 향해 예수는 무조건 사랑과 배려를 베푸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을 생각해보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목회자인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것”을 목회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렇다면 마틴 퍼시 박사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존재 이유란 무엇일까? 그는 “나 또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목회자의 의미를 항상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목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는 안정적 직업, 돈, 아니면 멋진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부름 받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며 “우리는 자상함, 포용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회에서 중요한 점을 되묻고, 그는 “‘좋은’의 가치”를 강조했다. “목회자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는 단순히 말하며, “인공지능과 달리 ‘좋은’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가치”라고 전했다. 종중 그는 “나는 학생들에게 ‘너는 그다지 실력 없고 형편없는 목회자가 될 수 있지만, 최소한 감취야 할 하나는 바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학생들에게 강조한다고 전했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나쁜 목회자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명쾌하게 답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상이 나쁜 목회자든, 아니면 자신의 일을 아무리 잘하는

목회자든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좋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며 “예수, 교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가치를 갈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모의 중요한 역할도 여기서 나온다”며 “부모는 우리를 혼낼 수 있고 참을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모가 좋은 사람임을 신뢰해야 한다”며 목회자의 역할을 부모에 비유했다.

나아가 그는 “당신의 섬세함, 자상함 그리고 포용력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목회자들을 독려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사람의 얼굴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의 눈빛과 입술은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며 “당신이 좋은 목회자라면 성도의 얼굴과 눈빛 속에 슬픔과 동요를 쉽게 간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은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목회는 오로지 사람의 영역이다. “왜냐면 이러한 인간성은 오직 영적 감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그는 “가끔은 성령께서 ‘보아라 저 사람은 대화가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니 같이 만나서 위로해 주어야’라고 말씀 하신다”고 했다. 이를 그는 ‘감성적 지식’이라고 칭했다. 그는 목회자들에게 권면의 말로,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며 “사역에서 동료 목회자 또는 성도들에게 서로 배울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그는 “목회는 결국 사람의 손길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타이밍을 잡고 위험을 무릎 써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위험을 감수하신 일을 뒤쫓아 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목회자의 소명을 생각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목회자야 말로 나를 포용하고 어떤 문제를 털어놓는다 해도, 나의 처지를 이해하며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릴 것이다’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물론 그는 “목회자도 직업인이기에 쉬어야 하지만, 일반 직업의 개념이 아닌 Occupation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념’하는 일”이라며 목회자의 사명을 역설했다. 반면 그는 “이런 사명은 인공지능은 실행 할 수 없다”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유일한 것”임을 구별지었다. 나아가 그는 “교회는 마음과 마

음이 만나는 장소”라며 “교회는 우리 삶의 전부가 숫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닌, 그 이상의 일이 있음”을 전했다.

한편 마틴 퍼시 박사는 성공이 목회의 목표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전했다. 그는 “교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닌, 신실한 믿음이 목표”라며 “자본주의는 생산성, 성장, 성공 등이 필수적 요소인 만큼, 교회 또한 그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그는 “수만 명이 모인 큰 교회에 가면 그 웅장함에 놀랄 수 있지만, 그 장소가 항상 좋지만은 않다”며 “때론 그 교회가 사람을 격려하기보다 영성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기독교의 규격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데 전착 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그는 “대형교회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그는 “아주 좋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전했다. 왜냐면 그는 “거기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믿음과 성공은 다른 영역”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신실한 교회는 때론 박해를 받는다”며 부흥은 규모를 담보하지 않음을 전했다. 때문에 그는 “신실한 교회는 정의를 지지하고 진리를 전하는 책무로 인해 규모가 작아 질수 있다”며 “이 세상이 얘기하는 숫자와 규모에 대항해야 하며, 목회는 하나님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임을 힘주어 말했다.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교회가 설립된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그는 교회의 존재 이유로 오직 믿음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믿음이 강했을 때는 교회가 작을 때”라며 “반면 교회가 클 때는 믿음이 가장 작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관점 즉 성공을 넘어서 ‘믿음과 인격’을 요구 하시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며, 똑같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게 초대교회 정신”이라며 “노예들만 모이는 교회, 헬라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돌봄을 주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목회자도

성도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마틴 퍼시 박사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꺼냈다. 그는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종교, 예배 형식,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들로 낙인찍었다”며 “그러나 유대인 역시 로마제국의 압제 상태에 있던 피해자 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도움을 줄 때 친구가 아닌 적을 통해서 줄 수 있다”며 “유대인 입장에서 나쁜 사마리아인은 두들겨 맞아 빈사상태이던 사람을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 주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치’임을 규정하며, 그는 “하나님 나라는 적, 타인의 위협, 감점, 약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과 다름”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신약은 정말 아름답다”며 “하나님은 우리 강점을 원하지 않으시고, 약함을 통해 빛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 지식을 폐하시키고, 끔찍한 일들을 통해 좋은 것을 가져가시다가, 다시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등,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운영하지 않으신다”며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했다.

이처럼 그는 “교회나 목회 및 선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 차원 높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선교의 회복이 시작되는 방식”임을 역설했다. 또한 나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그는 “‘적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아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도 아닌, ‘적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다는 점”을 말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이 세상과 피조물을 진정으로 전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씀 하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목회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해달라”며 “당신의 일은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닌 신실함과 겸손”임을 덧붙였다. 이에 마틴 퍼시 박사의 모든 강연은 마무리 됐다.

노형구 기자

##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일간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www.kogas.or.kr


#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공사 신고번호**

## 1644-0001



**가스안전**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 2장 5절)

어떤 행사나 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은 일단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특정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초청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일잔치나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선물이나 축의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본인의 형편으로 어려우면 적당히 다른 변명을 대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초대받은 쪽에서 그런 부담 같은 것은 전혀 없이 그저 기쁘고 명예롭기만 한 초청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의 주빈으로 모실 경우에 주관자 측에서 교통비를 비롯하여 숙박비 등 여비 일체를 다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초청을 받게 되면 본인은 아무 비용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는 초청, 즉 ‘소명’은 어땠겠습니까?

그 부르심 자체는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 정말 특권적인 초청임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초청을 받은 쪽에서 덧붙여 내야 할 무슨 비용이나 추가로 성립시켜야 할 무슨 조건 같은 것이 혹 달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초청에 따른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를 과연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상호해 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이미 완전히 충족되어 있는 초청입니다.

1장 26절로부터 31절에 “26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27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30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 그들이 제일 처음 구원의 길로 초청 받았을 때의 상황을 돌이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형편이란 정말 내놓을만한 것이 전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신자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즉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고학력자나 성공한 부자나 상류인사 출신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회에서는 이처럼 별다른 인성이나 환영받지 못할 자들이 놀랄게도 하나님께로부터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개인의 능력이냐 업적은 적어도 기록신자가 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상관도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남자가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그 전에 사회에서 좀 더 좋은 학교에 다니거나 좀 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파위의 차이들이 전혀 상관없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얻어 똑같이 신자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따지던 지식이나 능력의 차이 즉 ‘육체를 따른 조건’이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 대신에 꼭 필요한 조건은 곧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 강조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이미 택정해 놓으신 자를 그 예정해 놓으신 때가 왔을 때 불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들은 전혀 보지 않으시고 이처럼 일방적인 선택에 의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하신다든지,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 천당 입장권을 주신다든지, 남보다 더 착하게 사는 정도에 따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저려 홀로 다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곧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

다. 사람이라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이 지극히 높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한 가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모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못되는 줄 알면서 유독 구원 문제만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자연과 우주 앞에서는 ‘인간

의 힘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을 다스리는 절대자 운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인간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스스로의 양심 작용이나 선행으로써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으로 하여금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며 무례한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방지기 짝이 없는 소리를 아예 원천적으로 꼭 막아 버리시기 위하여, “아무 육체도” 즉 제아무리 지혜롭고 실력 있고 착하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구원 역사를 전적으로 당신 혼자만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동원하여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이미 완전히 충족시켜 놓으신 가운데서 택자를 불러 주셨으니, 부름 받은 자는 이제 30절 말씀대로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선택’에 그저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단 학생이 대학교에 입학하면 바로 그 자체가 그 학생의 면모요 위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모자랄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머리와 마음 속에 입력을 받은 ‘영적 지성인’들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격에는 여전히 약점들이 많이 남아 있어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교복처럼 입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조건을 채울 능력이 아무 것도 없고 그 은혜에 보답할 길도 전혀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함”의 덕을 토틉히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택자”, 즉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구원 예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처럼 간단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사람의 구도자적 자שה 수도 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벌써부터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실로 교만하고 건방진 행위가 될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신자가 단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해 주신 초청, 바로 이것 덕분에 내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지혜를 얻고, 구원받은 만한 칭의를 가져 있게 되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사는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구원이 완성될 천당영생에 들어가게 된 것만을 세상 앞에

서 진정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시절에 성악을 하던 제 친구 하나가 오페라에서 주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고함게도 초대권까지 제게 보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초대권 덕택에 그 웅장한 연주회장의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아주 멋진 오페라를 잘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권을 받고 온 사람들 중에 입장할 때 또 돈을 내고 표를 살 사람이 있었습니까?

정말 바보가 아닌 답에야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그 초대권에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연주회장에 입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선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보짓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 쪽에서 ‘좀 더 보충해야 할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행독구’의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값을 이미 다 치르신 후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 초대장을 받고도 사람 편에서 무슨 ‘연행’이나 ‘공로’니 하는 것을 치러서 또 다른 추가 입장권을 하나 더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을 때에는 조금도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어렵지 않을 까?’, ‘교회에 나가면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는 우리 편에서 뭔가 덧붙여야 할 무슨 경비나 조건부가 전혀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르시기 전에 모든 필요한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충족시켜 놓으신 후에 그 택한 자들을 불러 주시는 이 놀라기 짝이 없는 ‘무조건적인 초청’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써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자라면 성령의 감화강도에 힘입어 꼭 응답하게 되어 있는 초청입니다.

2장 1절 이하 5절에 “1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 2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5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여 전도를 시작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가 전도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철학적인 토론이나 세속적인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비단 고린도뿐 아니라 바울은 어디를 가서 전도하더라도 항상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가기 바로 전에 아레나 전도하러 가서 ‘아레오바고’를 방문했을 때에도 바울의 그런 자세는 똑같았습니다.

‘아레오바고’란 일종의 반원형 극장인데,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행 17:21) 즉 당대 최고 수준의 토론과 최신 정보의 교환이 벌어지던 ‘학문의 허브’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조차 바울은 단지 “죽은 자의 부활”(행 17:32)만을 증언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대학 교수들과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학술세미나에 가서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구원 받습니다!’라고 외친 격이었습니다.

만약 마음만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과 어떤 ‘지식적인 토론’을 못할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의 최상류층 문화와 헬라 철학의 최첨단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유대 사회에서도 당대 최고 학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야말로 얼마든지 기독교와 철학을 적당히 접목시켜서 재미있는 수사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할 실력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변론’으로 전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것이 머리 좋은 학자들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가 결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지혜’, 즉 ‘이성적인 논리와 판단’을 전적으로 배격하거나 부정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세상의 그 어떤 고차원의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복음이 어떤 깊은 지식 체계에 근거한 것이라면, 오직 똑똑한 사람만 이해하고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반면에 무식한 사람은 그 무지 때문에 구원을 얻을 길이 막혀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아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만을 증언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빈부차이나 지위고하나 지식유무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간단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길인 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월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는 말은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도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점 내지는 결점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두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길이 없지만, 하여튼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일반 대중의 눈에는 그가 사람을 끌만한 특별한 매력이나 카리스마를 소유한 사람은 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이었습니다.

비록 어눌한 말이나 서툰 화술로 전도한다 해도 택자는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순간에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무수히 체험했고 그래서 계속 철석같이 의지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써 얻게 된 신앙이란 세속적 논리나 이단사설의 꾀변에 의해서도 간단히 무너질 수 있지만, ‘성령의 감화감동하시는 능력’에 의해 얻게 된 신앙은 아무리 교묘한 이론이 공략해 봐도 그땡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아니 많은 목사들까지도 기독교의 전도를 무슨 ‘좋은 말로 설득하는’ 수준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전파를 무슨 상담사의 조언이나 현자의 강론 비슷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근본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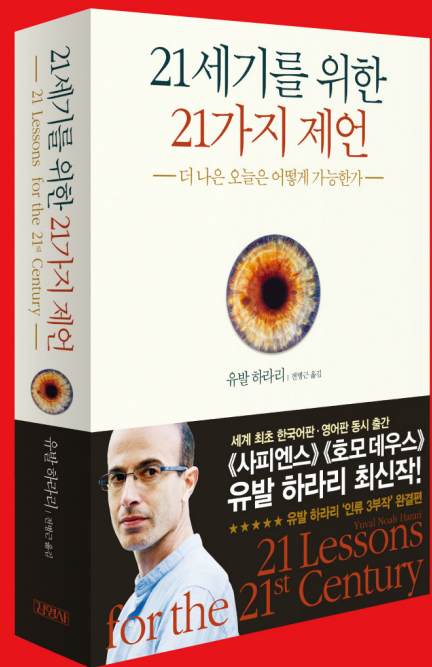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듣기 좋은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영벌입니다!’라고 사실 그대로를 강력하게 외쳐 전하는 것이 곧 전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그 대상이 택자이면 즉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 사람의 심령에서 작동하게 되며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 순간 즉시 그 전도대상자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초청을 받는 사람이 그 초청을 수락하는 답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사피엔스><호모 데우스>에 이은 ‘인류 3부작’ 완결편!



##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인간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한 가장 위대한 책

사피엔스 117쪽

유발 하라리 | 조현욱 옮김 | 이태수 감수 | 636쪽 | 22,000원



신이 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한 가장 대담한 책

호모 데우스 47쪽

유발 하라리 | 김영주 옮김 | 630쪽 | 22,000원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

김영사

TEL: 031955-3100  
www.gimyoung.com



